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6년도 포어 ◎

교회, 백성의 위로자(사40:1)

◎ 행동지침 ◎

- 1. 세계 복음화
- 2. 교회 천국화
- 3. 문화 기독교화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여호수아서 강해

## 사령관의 사령관

(여호수아 5:13-15)

요단강을 건넌 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고 할례를 행했으며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에 접근하려는 순간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그의 앞을 가로 막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가 누구인지 처음에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누군가를 위한 한 일꾼으로만 알았습니다. 가로 막은 그 사람은 자신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즉시 땅에 엎드려 절하고 하명해 달라고 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14절).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천군 천사를 총지휘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그 분이 여호수아를 돕기 위해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나는 너와 이스라엘을 위해 왔노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을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를 지휘하기 위해 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하나님 편에 있는 한 하나님의 군대는 여호수아를 위한 것이 될 것입니다.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천군 천사, 곧 천사의 군대 사령관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2:1-2에서 ‘하나님의 군대’는 두 진영(two camps), 곧 야곱의 지상 진영과 천군들의 더 큰 진영을 말합니다. 이 군대는 하나님의 사자들로 야곱을 격려하러 온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서 벤하닷이 엘리사를 체포하기 위하여 도단 성을 둘러싸고 있을 때 그들은 불발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천사 군대였습니다.

시편 34:7에서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6:53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 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생각하는 ‘여호와의 군대’란 바로 이와 같은 천군을 의미합니다. 이는 여호수아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군대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의 힘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승리를 얻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 1.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분은 누구인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13절).

그는 이스라엘의 사령관이었습니다. 그가 단순한 인간이라면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앞에 엎드린 것은 그가 힘센 인간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 하나님께서 동산에 나타나셨음을 마치 사람처럼 표현했습니다(창 3:8).

마므레 상수리나무 아래 있던 아브라함은 세 명의 길손을 만났습니다(창 18:1). 어떤 학자들은 세 명의 길손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셋 중 둘은 소돔으로 가서 롯을 구했으니 그들은 천사였고 나머지 한 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성육신(preincarnation)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은 베들레헴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인간의 모습을 수차례 보여 주신 것입니다.

압박장에서 야곱과 씨름한 상대에 대해 창세기 32:24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고, 호세아 12:4에서는 ‘천사’라고 했습니다. 야곱을 굴복시키고 그에게 세 이름을 주신 이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 분이십니다. 그가 받은 새 이름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 정복된 자’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군대 장관도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 2. 하나님의 군대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14절).

‘하나님의 군대’란 표면에 나타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 분은 유대인 군대를 지휘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사령관이 된 여호수아가 여리고 작전 명령을 하달해 달라고 그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 내용은 두 말할 것도 없이 앞으로 7년 동안 계속될 가나안 정복을 위해 할 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는 성경에서 아주 다른 의미로 쓰였습니다. 즉 ‘천사들의

### 3.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13절).

여호수아의 질문에 그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천군 천사를 총지휘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그 분이 여호수아를 돕기 위해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나는 너와 이스라엘을 위해 왔노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을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를 지휘하기 위해 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하나님 편에 있는 한 하나님의 군대는 여호수아를 위한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함입니까? 아니면 원수들을 위함입니까?” 그때 주님은 “둘 다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으로 지금 왔느니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싸워주심으로 이스라엘은 부전승했습니다. ‘신을 벗으라’는 말은 하나님께 경외심을 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분이 계신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을 앞세우고 싸우므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 여름성경학교 · 수련회 은혜 속에 열리고 있어

- 교육1국 : 7월24일(월)-25일(화) 서울교회
- 고등부 : 7월27일(목)-29일(토) 에덴농원 (강원도 평창)
- 디아스포라부 : 7월28일(금)-29일(토) 알프스 산장 (강원도)

2006년 교육1국 여름성경학교 및 고등부 여름수련회, 디아스포라부 여름수련회 등 3개 부서의 수련회가 금주 중에 시작된다.

교육1국 여름성경학교는 '경건한 생활을 하고 싶어요'를 주제로 7월 24일(월)부터 25일(화) 까지 이틀간 교회에서 열린다. (초등부는 대성리 학생수련원에서) 올 여름성경학교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어린 학생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경건한 신앙인으로 자라나도록 재미있는 순서들을 통해 신앙의 기초를 다지게 한다.

또한 고등부는 7월27일(목)-29일(토)까지 3일간 에덴농원(강원도 평창)에서 '신앙의 기본 다지기'를 주제로, 디아스포라부는 7월28일(금)-29일(토)까지 이틀간 알프스 산장 (강원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

로 살자'를 주제로 여름수련회를 갖는다.

고등부와 디아스포라부의 여름수련회도 교육1국 여름성경학교와 마찬가지로 자칫 소홀하기 쉬운 신앙의 기본을 다지고 배우게 되는 자리로 준비된다.

하나님께 영광돌리고 본인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이번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참석하기를 원하는 학생들과 성도들은 은혜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기도로 준비하고 성경 찬송과 같이 입을 옷, 세면도구와 회비를 준비하여 참여하면 된다. 참가신청은 각 교회학교에서 접수하고 있다.

많은 학생들과 성도들이 이번 여름수련회에 참여하여 은혜 받고 신앙의 기본을 단단히 다져 굳게 서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기를 기도한다.

## Pilgrims' Vision Trip 서울교회 성지순례단 신청 마감 임박 7월30일 (주일) 마감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11일(토)까지 2주간의 일정으로 지중해 연안에 산재해있는 기독교 유적을 돌아보는 서울교회 성지 순례단 신청이 마감을 일주일 앞두고 있다.

이번 성지순례는 교회당을 헌당 한 후 성도들과 성지순례를 하겠다는 이종운 목사의 약속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돈독히 하고자 준비하는 것으로 성지순례단 명칭을 Pilgrims' Vision Trip으로 정하고 이집트(애굽), 터키, 그리스, 이스라엘을 방문, 기독교 유적을 돌아보며 함께 은혜의 시간으로 준비된다.

특히 성지순례 중 이종운 목사의 집례로 선상춧볼 예배 및 성찬식을 갖고 감동적인 특별 문화행사도 갖는다.

1인당 경비는 약 299만원으로 현재 사무국에서 접수하고 있으며 다음 주일(7월30일)까지 접수를 완료할 예정이다. 선착순으로 신청을 마감하고 있으니 성지순례를 통해 귀한 시간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 성도들은 속히 신청을 마쳐주시기 바라며 2주간의 긴 여정 동안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란다.

## 수해당한 이웃을 위한 구제헌금 드리기로 7월 30일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노아 시대의 대홍수를 방불케 하는 300mm가 넘는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 집을 포함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우리교회는 교회 목표 중 두 가지를 만민에게 전도와 빈약한 자 구제로 세우고 태풍을 비롯한 천재지변의 경우 교회적으로 구제의 손길을 펴고 있다.

우리교회는 이번 폭우로 고난을 당한 이재민을 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 주님의 이름으로 도움의 손길을 펴기로 하였다.

원래 7월 30일 마지막 주일은 선교헌금을 드리는 달이나 이재민을 구제하기 위해 '구제헌금'을 드리고 이를 이재민을 돕는데 사용하게 된다.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웃 사랑의 아름다운 손길을 펴는 서울교회 성도들 되시도록 간절히 기도한다.

## 방글라데시에 Youth Hostel 세운다

우리교회 선교위원회(위원장: 이영기 장로)는 방글라데시의 모슬렘 개종자 가족 중 유소년(6-18세)들을 수용하고 교육시켜 우수한 기독교 지도자들을 양육키 위한 목적으로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 근교에 소망호스텔을 건립키로 했다.

모슬렘 교도 중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이들이 심한 핍박으로 그들 자녀를 조차 기존 학교에 다닐 수 없고 또한 젊은이들은 가정에서 쫓겨나 거처가 없는 이들이 늘어가고 있다. 이들 중에 선발된 소수의 미래 지도자 양육 프로그램을 진행키 위해 2010년까지 연도별로 미화 일 만 불씩 지원하면 계획을 따라 수혜 대상자와 시설을 확장해가면서 추진케 된다.

우리교회 조남혜 선교사에 의하면 이 프로젝트야말로 모슬렘 선교 전략 뿐 아니라 방글라데시를 재건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한다. 이 사역 성공을 위해 온 교회는 기도와 물질로 힘을 보태주어야 한다.

## 8월 한 달 다락방 모임 방학

혹서기를 맞아 8월 첫 주부터 한 달 동안 다락방 모임을 방학한다. 계속 모이기를 원하는 다락방은 다락방 교재를 교회 사무국에서 받을 수 있다. 모이지 않는 다락방은 계속하여 전화 심방 등을 가져 다락방원들의 유교 사항 등을 점검하여 교구담당 교역자가 심방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란다.

## 피택자 전반기 교육 마치다

지난 6월3일부터 매주 토요일 새벽마다 실시해 온 피택 집사, 피택 권사 전반기 교육이 지난 15일(토)까지 총 7주간 동안 계속되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은 방학을 갖고 9월2일(토)부터 10월말까지 후반기 교육이 실시된다. 방학기간 동안은 과제물 준비와 경건 훈련에 진력해야 하며 1/5 출석미달자는 교육위원회 지도목사에게 신청하여 보강을 받아야 한다.

## 하절기 방역 실시

무덥고 습한 장마철을 맞아 교회 건물 내에 기생하기 쉬운 각종 해충을 퇴치하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난 20일(목)하절기 방역을 실시하였다.



교육1국 여름성경학교 · 고등부 디아스포라부 수련회

#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경건한 신앙생활을...

**최학인 장로(교육1국장)**



방학이 되면 학교에서 학원에서 여러 명목으로 여름캠프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잠언 1:7)이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우선 합니다.

한 가정에 자식이 없다면 그 가문은 대가 끊어지고, 나라에 어린이가 없으면 그 민족은 미래의 희망이 없습니다. 유아, 유치, 유년, 초등부 어린이들 모두는 서울 교회와 한국교회의 미래입니다.

이 꿈나무들의 여름 성경학교가 7월 24일, 25일 양일간 개교됩니다. 개교예배를 시작으로 유아, 유치, 유년부는 교회에서, 초등부는 대성리 학생수련원에서 각각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경건(디모데전서 4:7)을 배우게 됩니다.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여름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은 해당 학생들을 참여시켜 주시고, 기도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간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기간을 통하여 우리 어린이들이 건강한 크리스찬으로 자라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 신앙의 기본기 다지기

**최치순 집사(고등부 부장)**



‘신앙의 기본기 다지기’라는 주제로 고등부 여름수련회가 7월 27일(목)부터 7월 29일(토)까지 강원도 평창군 예텐농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에서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는 예배의 중요성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가를 단계적으로 제시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꿈과 이상이 풍부한 고등학교시절은 갈래길이 많습니다. 인간의 제일된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충실한 신앙의 기본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적으로 학부모님들의 신앙적인 결단과 세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번 여름수련회는 신앙의 기본기 다지기로 중생의 체험이 없는 학생들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있습니다. 주위의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오시어 엄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름!

##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자

**탁경준 집사(디아스포라부 부장)**



7월 28일(금)부터 29일(토)까지 2006년도 디아스포라부 여름수련회가 강원도 진부령에 위치한 알프스산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자!”라는 주제로 진행 됩니다.

그동안 많은 탈북 형제, 자매들이 우리 서울교회 디아스포라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으며,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대한민국이라는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정착도 어려웠지만 교회라는 새로운 곳에서의 정착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고 우리 디아스포라부가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도약을 꿈꾸며, 새로운 결단을 가지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세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너희가 어찌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수24:15절)는 여호수아의 결단의 고백이 우리 디아스포라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탈북 출신의 형제, 자매들의 고백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천국시민 양성 - 사랑부 여름성경학교를 마치고

# 하나님 나라는 참 좋아요

**서순의 집사(사랑부 교사 14교구)**

“흰 구름 뭉개뭉개 피는 하늘에 아침 해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이렇게 시작되는 여름성경학교 교가가 무색해질 정도로 아침부터 주룩주룩 우르르 광광 번쩍 큰비가 옵니다. 행여 사랑부 친구들이 많이 오지 못하면 어쩌나 염려하며 사랑부 선생님, 부장님, 부감님, 교사들 금식하며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서울교

회 사랑부 친구들이 평소보다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참 좋아요’라는 주제로 이태훈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2부 순서로 올리는 테마별 여행으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가에 대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천국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칙칙폭폭 푸~~~~ 천국행 기차를 기관장을 앞세우고 힘차게 출발합니다.

코너별로 1. 하나님 나라는 편안해요. 2. 하나님 나라는 서로 사랑해요. 3. 하나님 나라는 즐거워요. 4. 하나님을 경배해요. 5. 하나님 나라의 왕자님과 공주님이에요.

천국행 기차를 탄 우리는 각 코너를 돌며 테마체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코너마다 아름다운 날개와 화려한 왕관을 쓴 천사들이 상냥하고 예쁜 말씨와 부드러운 미소로 하나님 나라에 오신 우리들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친구들은 너무 재미있고 즐겁고 신나서 까르르 까르르 자지러집니다.

테마여행을 하면서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만들어보고 느껴보고 즐겨보고

하는 감각적인 것을 통해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체험했습니다.

테마여행 중 우리 모두 하나님과 왕자님과 공주님이 되어서 왕자복과 공주님의 의상으로 갈아입고 예쁜 사진도 “찰칵” 찍었습니다. 친구들, 선생님들, 엄마와 하나님 나라에서 멋진 왈츠도 추었습니다.

오늘 하루 바깥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끼리 살짝 하나님나라에 다녀왔거든요. 선생님들께서는 하나님 나라 테마여행이 참 즐거운 여행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시면서 찬양곡도 친절하게 들려주셨어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마친 사랑부 여름성경학교, 은혜 중에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민에게 전도 - 카자흐스탄 단기선교

#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주세요



### 신용식 장로(단장)

1. 카자흐스탄에 복음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2. 서울교회가 카자흐스탄 파라즈에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건축을 맡은 단기선교팀에게 축성을 다하게 하소서.
3. 단기선교팀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세계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소서.
4. 모든 일정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해주시고 회원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 이남성 집사

1.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

### 오유식 집사

1. 카자흐스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부족함이 없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2. 단기선교팀 전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무런 안전사고 없이 선교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3. 카자흐스탄의 악한 세력을 물리쳐주시고, 오로지 주의 성령님 함께 하시어 주의 뜻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만민에게 전도 - 카자흐스탄에서 온 편지

##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존경하는 위임목사님 그리고 서울교회 성도님께

이 땅, 이 도시, 무슬림의 땅에 예배당이 건축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당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교회에서 보내주신 생활비중 일부를 가지고 지난 6월15일부터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지금은 기초공사가 거의 완공되었으며 오늘부터 기둥골조공사가 시작됩니다. 건축이 완공될 때까지 모든 공사가 최상으로 이루어지도록, 가장 아름답고 경건한 예배당으로 지어지도록 계속 기도해주시십시오.

이곳에서 70킬로 떨어진 부르니 마을(인구 약 만 명)에도 가정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한 가정으로부터 시작하였고 곧 한 가정이 더 합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음껏 예배드려도 아무런 제한이 없는 우리 조국, 한국이 참 부럽습니다. 외국인선교사가 방문하고 모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경찰(KGB)에 알려지면 불려다가 심문하기도 하고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사역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곳에 벌써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주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감격합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순례자와 주보가 여기까지 국제우편으로 배달되어 너무 너무 좋습니다. 인터넷으로 순례자를 보려고 몇 번 시도해보았지만 볼 수 없어서 아쉬워하던 차였습니다. 위임목사님의 시편강

해를 아침예배시간에 설교대신 읽곤 합니다. 흥해작전으로, 김치세미나로 오직 복음과 하나님나라의 확장을 위해 전력을 쏟으며, 주님 앞에 크게 쓰임 받고 있는 우리 서울교회가 너무 자랑스럽고 사랑스럽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서울교회의 한 지체가 된 것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모든 영광을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공사현장의 사진을 보내드립니다. 한 장을 송부하는데 20분정도가 소요됩니다.

주님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저희를 이곳에 복음의 일꾼으로 파송해주신 위임목사님과 서울교회 성도님께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서울교회위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06년 7월5일 카작 타라즈에서  
이은준 강혜정 올림



교회공사현장

### 동정

- 이종윤 목사는 24일(월) 서울여대 이사회, 26일(수) 한국장로교 농어인 선교대회에서 특강을 한다.
- 임명: 이영희 선생(5교구)은 1부 팀파니스트, 김현주 선생(12교구)은 시온찬양대 피아니스트로 각각 임명되다.
- 교역자 하기 휴가: 7/24-29 서명철 목사 (대행) 한상은 목사
- 이전: 서울오도(윤성남 집사) 서초구 양재동 241-5 T3463-0389(0399)
- 이사: 채준석 성도, 양수는 성도(12교구)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죽현마을 동원로얄듀크 T. 031-890-9985
- 주간식당봉사: 당회원(7월23일) 스테반회(7월30일)
- 금주의 식사제공: 김태삼 집사, 조숙자 집사 가정 (자녀 결혼 감사하며) 교회제공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세벽기도회	매일새벽 5시30분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여류성경학교 · 수련회가 은혜 충만한 성회 되도록
2. 카자흐스탄 교회건축, 방글라데시 유스호스텔 건립 위하여
3. 호산나 복지법인과 사랑의 집터를 위하여
4. 새로 번역된 주기도 · 사도신경 한국교회가 사용토록
5. 북한의 신앙 자유와 복음화된 통일조국 위하여

### 교회오시는 길

